

# 중국어 음성학 · 음운론 관련 한국어 용어의 문제\*

엄익상\*\*

## 〈목 차〉

1. 머리말
2. 너와 나의 글쓰기 문제
3. 학문분야명칭
4. 음성학 · 현대음운론 용어
5. 역사음운론 용어
6. 맺는말

## 1. 머리말

한국에서의 중국어 연구의 의미와 바람직한 연구 방향은 한국에서 중국어 연구자가 흔히 겪는 고민이다. 엄익상(2002[2005])의 《중국언어학 한국식으로 하기》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sup>1)</sup> 이 책이 제1장 <한국의 중국언어학과 한국적 중국언어학>에서 그가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내용

- |                  |   |                    |
|------------------|---|--------------------|
| a. 종합적 접근과 서술    | → | 언어학적 문제제기와 해결방안 제시 |
| b. 비판 없는 논문      | → | 기존 이론의 오류 비판       |
| c. 비분석적인 논문      | → | 언어 자료 분석           |
| d. 이론 · 일반 독자 무시 | → | 주변 학문과 소통          |

### (2) 형식

- |                    |   |                               |
|--------------------|---|-------------------------------|
| a. 중국어 · 한자어 용어 남용 | → | 한국어 용어<br>우리말로 학문하기-중국어 한글표기법 |
| b. 비중립적 용어         | → | 중립적 · 객관적 용어                  |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2006-2007년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집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준 정진강, 심소희 교수 등께 감사를 드린다.

\*\* 한양대학교 언어문학부 교수

1) 서명 표시는 한글 논문에서는 『 』가, 중문 논문에서는 《 》가 더 많이 사용되나; 이 글에서는 편집 규정에 따라 < >를 사용한다.

- |                 |   |                              |
|-----------------|---|------------------------------|
| c. 자의적 본문 구성    | → | 전형화 된 구성 <sup>2)</sup>       |
| d. 불필요한 문헌정보 주석 | → | 본문 안에서 “저자명(2007:614)”식으로 처리 |
| e. 원칙 없는 참고문헌   | → | 한·중·영문 저자 성명 음순              |
| f. 불필요한 인용 및 번역 | → | 본문에서 소화                      |

여기에 제시한 내용들은 아직도 유효하다. 각각 상당한 분량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엄익상의 위 책에서 일정 부분 논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재론을 피한다. 필자는 글쓰기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은 똑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용은 없이 형식만 그럴듯한 글은 감동이 없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좋은 형식에 담아내지 못하면 설득력이 약해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식의 문제 가운데 (2a)에서 지적한 중국식 용어의 사용 문제를 필자의 연구 분야인 음운론과 관심 분야인 음성학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2. 너와 나의 글쓰기 문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이 글이 지적하고자하는 문제점의 실례를 시대별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 2.1 1980년대 문장

첫 번째 예는 엄익상(1985:33-34)이 석사 논문에서 중국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3) 劉勰는 作品의 風格을 典雅·遠奧·精約·顯附·繁縟·壯麗·新奇·輕靡 등 여덟 가지로 나누고 이를 八體라 했다.

위 문장에서 두 가지 점에서 관심을 끈다. 첫째 주어 劉勰와 연결한 조사를 ‘은’이 아니라 ‘는’으로 쓴 것이다. 이는 劉勰을 ‘유협’이 아니라 ‘리우 시에’로 읽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인명이나 지명 같은 고유명사를 현지 원음으로 읽어야 하고, 한글 문장에서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당시 김용옥·최영애의 주장에 필자는 공감을 하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필자가 석사 논문을 제출하던 1985년에 소위 최영애·김용옥표기법을 발표하였고, 이듬해인 1986년 정부안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1996년 독자적인 한글표기법을 발표하기까지 기존의 표기법 선택을 유보하고 (3)번과 같은 방법으로 고유명사를 처리하였다. 소위 엄익상표기법은 2002년에 보다 간편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수정되어 현재 제3의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언어현상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어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1, 1.1, 1.1.1 등의 형식으로 본문을 구성하라.

1996년 이후 최근 10여 년 간 한국의 중국어음운론 학계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된 단일 주제를 꼽으라면 아마 중국어 한글표기법일 것이다. 필자(2002a, 2003)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으므로 여기서는 재론을 피한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3)에 사용된 여러 가지 중국식 단어이다. 소위 팔체설의 여덟 가지 내용 가운데 (4)에서 밑줄 친 다섯 가지는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아예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이다.

(4) 典雅 · 遠奧 · 精約 · 顯附 · 繁縟 · 壯麗 · 新奇 · 輕靡

물론 큰 사전에는 이런 말마저 수록되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국학계에서 이런 종류의 한글 문장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음은 1988년 서울에서 출판된 한자학 관련 번역서에서의 인용이다.

(5) 象形 · 指事와 會意 · 形聲의 구별은 獨體나 合體의 차이이고, 또한 依類象形인 文과 形聲相益인 字의 不同性인 것이다.

‘의류상형’과 ‘형성상익’은 아는 사람만 알 것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부동성’을 치면 浮動性이 뜬다. 당시 이 책을 읽던 사람들은 물론 그 의미를 잘 파악했겠지만, 오늘 날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한 초벌 번역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같은 책에서 인용한 다음 문장을 보면 번역자의 번역 언어에 대한 기본자세까지 의심하게 한다.

(6) 그러므로 ‘中國文字是從象形文字演化而成的’라는 說은 가능하지만 ‘中國文字都是象形文字’라는 說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 2.2 1990년대 문장

다음은 1992년 일본어 책을 한글로 번역한 중국문학관련 전문 서적에서의 인용이다.

(7) 晉의 왕희지가 회계 산음의 난정에서 동지들과 더불어 宴集했던 정경은 《晉書》<왕희지 전>의 이른바 <蘭亭의 序>에 기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때는 永和 9년, 歲는 癸丑 곧 東晉 穆帝의 世이며, 暮春의 初 곧 이른바 삼월 삼일 上巳의 節日이다. . . . 높이를 極하여 眺望 하지 못함이 없었다.

위 번역문에서의 두드러진 문제는 “永和 9년, 歲는 癸丑, 穆帝의 世, <暮春>의 初, 上巳의 節日, 높이를 極하여”같은 한자 투의 문장이다. 또 ‘永和 9년’같이 연대를 연호로 표기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수천 년의 중국 연호를 다 외워야하는 부담을 준다. 이는 지극히 중국적인 글쓰기 방법이다. 독자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서기 몇 년으로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1990년대 초 지방 도시에서 출판된 중국어음운론 관련 저서에서의 인용이다.

(8) 현대한어에서 성모와 운모의 철음법칙은 우리말보다 엄격하다.

‘철음법칙’이란 무슨 뜻인지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앞 뒤 내용을 살펴보고서야 비로소 중국어에서 정상적인 음절을 구성할 수 있는 성모와 운모의 결합법칙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Spelling을 의미하는 綴字를 생각하면 綴音을 쉽게 연상할 수 있을 터이고, 놀랍게도 한글 한자어에도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에게는 얼른 의미가 와 닿지 않았다.

이렇게 중국어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은 고대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를 가리지 않는다. 다음은 1994년에 출판된 중국어 문법 관련 번역서에서의 인용이다.

(9) 보어가 단독으로 주어나 혹은 피동작주를 설명하지 않을 때 늘 重動文, 把字文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피동작주’란 도대체 무엇인가? ‘중동문’이란 리와 톰슨(Li & Thompson 1996)을 한글로 번역한 책에서 ‘동사의 복사(verb copying)’라고 지칭한 大家拍手拍得更響了같은 구문을 지칭한다. 필자는 현재 한국의 중국어 문법학계에서 이런 문장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把字句를 ‘바자문’으로 부르는 것은 어딘지 어색해 보인다. ‘바’(把)는 중국음이고 ‘자문’은 한자음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조어 정서에 잘 맞지 않는 표현이다. ‘목적어전치구문’ 같은 용어를 제안하고 싶지만, 이 경우 문법학자들은 把자 없이도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전치되는 다음과 같은 구문을 바로 연상할 것이다.

- (10) a. 作業我已經做完了。  
b. 我作業已經做完了。

(10a)는 주체문으로 설명하면 된다. 把자구문을 목적어전치구문이라고 했을 때 강조나 기대상반 효과를 의도하는 (10b)와 같은 문장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분할 것인가는 문법학자들의 몫으로 남긴다. 了1, 了2를 응용하여 목적어전치구문 1, 2로 우선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1994년 책은 당시 소장 연구자들의 번역문을 모은 책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예들이 너무 많다. 예를 하나만 더 들면 다음과 같다.

(11) 본문은 동결식구에는 두 가지 언급을 포함할 수 있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주로 다음

네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 a. 두 언급 간의 관계
- b. 언급이 하나 뿐인 동결식구
- c. 보어(R)의 언급대상 판별원칙
- d. 동결식구의 부정형식

여기서 ‘동결식구’란 動結式句라는 중국어를 한자음으로 옮긴 것으로 水流盡了같은 V+R 즉 결과동사복합어구문을 지칭한다. 이런 용어를 현재 중국 문법학계에서 아직 쓰는지 몰라도 한국어에서는 전혀 의미전달이 되지 않는 용어이다.

### 2.3 2000년대 문장

중국어 언어학 논저가 쏟아져 나오는 2000년대에 와서도 위와 같은 오류가 줄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음은 2000년에 출판된 중국어 음운론에 관한 영·중문 서적의 국문 번역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12) 십삼철(十三輒)의 전통 속에 소위 소철아(小輒兒)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화운으로서 단지 소언전아(小言前兒)와 소인진아(小人辰兒) 2철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무슨 말인지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다. ‘십삼철’이란 옛날 경극의 용운(用韻)을 근거로 귀납한 근대한어 북방음계의 열세 가지 운을 말한다. ‘소언전아’와 ‘소인진아’는 그 중 일부의 명칭이다. 전자는 an계통의 운을 말하고 후자는 en, in, yn, un계통의 운을 말한다. ‘언전’과 ‘언진’으로만 번역해도 괜찮을 것이다. 위 번역에서 압권은 ‘아화운’이다. 이는 중국어 음운론에서 널리 사용되는 兒化韻을 한자음으로 옮긴 것인데 차라리 중국음인 ‘얼후아(원)’ 또는 ‘얼화(운)’라는 표현보다 더 생경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뒤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한편 2005년에 나온 한자학관련 중문서적의 번역서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다.

(13) 가장 적당한 분류를 한 사람은 일본의 패총무수(貝籠茂樹)으로 《경도대학인문과학연구소장갑골문자(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藏甲骨文字)》에서 제사(祭祀), 구년(求年), 풍우(風雨), 순석(旬夕), 전렵(田獵), 왕래(往來), 방국정벌(方國征伐), 사령(使令), 질병(疾夢), 복점(卜占), 정인(貞人), 잡복(雜卜) 12개로 분류했다.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인 인명은 원음으로 표기해야 한다. 외국의 인명과 지명에 관한 원음 표기는 국가 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어문규정이다. 둘째 한글 문장에서 한자의 간체자 사용은 중국어 교재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적절하다. 한국에서는 한자를 정자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한자교육도 이제는 간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번체자를 정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어문규정이다. 세 번째 문제는 12 가지 항목 가운데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적지 않은 중국식 한자어의 직수입이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를 밑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4) 祭祀 求年 風雨 旬夕 田獵 往來 方國征伐 使令 疾夢 卜占 真人 雜卜

이렇게 보면 1985년부터 2005년까지 20년간 우리의 글쓰기에는 어쩌면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어쩌면 최근 엄청나게 늘어난 한국의 중국학자들은 더욱 열심히 중국어 단어를 직수입하여 한글 문장에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아무튼 지금까지 지적한 오류를 요약하면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5) a. 중국식 일반단어의 직수입 : 원오, 정약, 현부, 신기, 경미, 구년, 순석, 질몽, 정인  
 b. 중국식 전문용어 한자음 전환 : 피동작주, 중동문, 파자문, 동결식구, 언급, 소철아, 아화운  
 c. 한자식 말투 : 목제의 세, 높이를 극하여  
 d.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는 한자어 사용 : 철음<sup>3)</sup>

필자는 학문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위하여 일반적인 용어 사용이 글쓰기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글쓰기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글쓰기의 또 다른 목적인 기록 보관의 기능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위에 제시한 예들은 중국어 언어학자 간에도 세부 전공이 다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리의 글쓰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물며 어학과 문학의 경계를 뛰어 넘으면 다음과 같은 인터넷 외계어를 접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의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 (16) a. ㄱ왁 념획 샐邕下넌겍  
 b. 아부훼석 올반 담땡웁왁 잘 해 주닌거일꺼학..oo

(16)번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중국어 단어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감각을 가진 자(?)일 것이다. 만약 이해가 잘 안된다면 (17)과 같이 번역이 필요하다.

- (17) a.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  
 b. 아부해서 우리 반 담임 쌤이 잘 해 주는 거일꺼야..oo

3) 여기에 ‘신선’과 《논어》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은 중국어나 한국어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대로 한자음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나 막상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정확히 대답을 못하는 한국어 성인 화자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단어들을 그대로 한자음으로 전환하여 번역하면 되는 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3)에서 (13)까지 예시한 문장들에 대하여 중국어 전공자마저도 우리말 번역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언어를 연구하거나 언어학 이론을 주로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학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어 음운 · 문법 · 한자학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일반 언어학자나 다른 개별언어학자 나아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나 일반인들마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국어 음성학 · 음운론 관련 우리말 용어를 탐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중국어나 영어 용어의 문제점도 같이 거론할 것이다.

### 3. 학문분야명칭

#### 3.1 중국언어학 또는 중국어언어학

이미 좀 진부한 질문이지만 영어의 Chinese Linguistics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漢語語言學이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 (18) a. 한어언어학
- b. 중국어언어학
- c. 중국언어학
- d. 중국어학
- e. 중어언어학

‘어언학’을 언어학으로 바꾸는 것은 간단하다. 문제는 앞부분이다. 중국어 표현을 따라 한어언어학이라고 하였을 때 한어가 한국어에서 통용되는 단어인가가 문제이다. 중문과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답은 부정적이다. 한국어에서 중국어란 중국 영토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집체적으로 지칭할 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인 한족이 사용하는 한족의 언어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중국어언어학이라고 해야 정확하다. 그런데 Chinese linguistics 또는 漢語語言學를 중국어언어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18c) 중국언어학 또는 (18d) 중국어학보다 음절이 많아서 번거로운 까닭도 있을 것이다.

중국어로 씌어진 문학작품과 연구 분야를 중국문학이라고 하지 굳이 중국어문학 또는 중문문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漢語語言學는 대개 중국언어학 또는 중국어학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어학이라는 말은 한국어에서 언어연구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습까지도 지칭하므로 부적절한 용어이다. 설령 학문분야를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문헌학적 언어 연구(philology)에 더 부합하는 용어이므로 (18c) 중국언어학이 차라리 더 적절해 보인다.<sup>4)</sup>

4) 여기서 말하는 문헌학이란 과거 문헌 중심의 언어연구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서의 출판, 판본, 목록 등

다만 중국언어학이라고 했을 때는 중국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뿐 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언어연구 즉 중국의 언어학 연구를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걸린다. 영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자를 영어언어학자라고 하지 영국언어학자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법의 경우도 중국어문법이 지 중국문법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18b)와 (18c)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엄익상(2005:104)이 제기한 것처럼 좀 더 확실히 따져볼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어언어학, 중국어문법, 중국어성운학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중국어언어학을 줄여서 (18e)처럼 ‘중어언어학’이라고 하면 위에서 거론한 문제는 물론 음절길이의 부담도 해결할 수 있어 이상적이다. 다만 영어, 일어, 불어, 독어와는 달리 중국어를 ‘중어’로 줄여 쓰지 않는 습관 때문에 다소 생소한 느낌이 문제이다.

### 3.2 성운학, 음운학 또는 음운론

중국어권에서는 중국어의 음운체계와 변화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하위 분야인 *phonology*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부른다.

- (19) a. 聲韻學
- b. 音韻學
- c. 音係學

한국의 중국어 전공자에게 성운학은 성모와 운모를 연구하는 보다 고전적인 용어로 인식되는 반면에 음운학은 그 의미역이 확대된 보다 현대적인 용어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중국어 화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대만에서는 성운학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음운학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中國音韻學會가 있고 대만에서는 中華民國聲韻學學會가 있다. 중국의 음운학회가 역사음운론자들의 모임이라면, 대만에서 성운학학회는 통시언어학자들은 물론 공시언어학자들의 활동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만에서 英語聲韻學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지만, 성운학 그 자체는 역사음운연구와 현대음운연구를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음운학은 역사음운연구만 지칭한다. 현대중국에 대한 음운연구는 음계학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운체계라는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음계학은 성운학 만큼이나 문자적으로는 매우 좁은 의미역을 지닌 단어이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통시적 연구는 성운학 또는 음운학으로 공시적 연구는 음운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과 대만의 용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구분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통시와 공시를 불문하고 다 음운론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음운연구는 언어학이라는 독립학문 영역에 속해 있는 하위 연구 분야이므로 음운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분류의 층차 면에서 부적절하다. 중국에서 語音學이라고 하는

에 관한 연구를 지칭하는 서지학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전자는 영어로 *philology*에 해당하고, 후자는 *bibliography*이다.



phonetics는 어음학이 아니라 음성학으로 번역하면 된다. 언어학의 방계 학문으로 하나의 독립적 영역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학의 하위분야는 형태론, 통사론처럼 xx론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를 꼭 구분해야할 경우에는 역사음운론과 현대음운론 또는 통시음운론과 공시음운론 등으로 나누어 쓸 수 있을 것이다.

### 3.3 어법 또는 문법

이런 점에서 어법학이라는 용어도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이다.<sup>5)</sup> 통사론이라고 하든지 문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한국어에서의 어법은 완곡어법, 겸양어법 등 수사법적인 표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법에 문법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에서 어법은 일차적으로 mood를 의미한다. 영어문법, 국문법이라고 하지 영어어법, 국어어법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중문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법이라는 용어도 문법이라는 말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에서 문어의 법칙에 대비하여 구어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나온 말이 어법이겠지만, 보통 요즘 현대중국어 문법 연구에서 말뭉치(語料 corpus)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굳이 이런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어문법 또는 구어문법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다. 중국 고전어의 문법 연구는 문헌자료에 주로 근거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구어문법의 연구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대어법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sup>6)</sup>

### 3.4 문자학 또는 한자학

문자학이라는 용어 자체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그러나 문자학이란 말은 다분히 포괄적이다. 문자학의 연구 영역이 세계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앞에 중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맞다. 그러나 중국문자학은 중국의 영토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의 문자를 지칭할 수도 있으므로 더 정확히는 소수민족 문자를 배제하는 한자학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 4. 음성학 · 현대음운론 용어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여 중국어 음성학 및 현대음운론 관련 한국어 용어 가운데 부적절한 것과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부 정상적인 예가 포함될 수도 있다.

- 5) 이 문제는 2006년 12월 박용진과 《중국어교육 어떻게 할까》(제1판 제3쇄)를 수정하면서 처음 제기되었다.  
6) 문법 용어 가운데 賓語, 定語, 狀語 등 용어도 목적어, 형용사(수식어), 부사어로 부르는 것이 옳다. 動賓結構, 偏正結構 등도 한자음으로 바로 옮기면 부적절하다.

### 4.1 기본 용어

다음은 자음이나 모음같이 가장 기본적인 용어와 이들 기본음의 자질을 구별할 수 있는 기본 용어이다.

(20)	중국어용어	영어용어	오용 예	제안용어
	輔音	consonant	보음	자음
	元音	vowel	원음	모음
	清音	voiceless	청음	무성음
	濁音	voiced	탁음	유성음
	送氣	aspirated	송기(음)	유기음
	不送氣	unaspirated	불송기(음)	무기음

### 4.2 자음 관련 용어

자음은 (21) 조음의 위치와 (22) 조음의 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예들 들어, bilabial nasal [m]은 중국어로는 雙脣鼻音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양순비음이라고 한다. Alveolar plosive [t]는 중국어로는 舌尖(中)塞音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치은파열음이라고 한다.

(21)	脣音	labial	순음	순음
	雙脣音	bilabial	쌍순음/중순음	양순음
	脣齒音	labiodental	경순음	순치음
	舌尖前音	dental	설첨전음	치음
	舌尖中音	alveolar	설첨중음	치은음
	舌尖後音	retroflex	설첨후음	翹舌音
	[捲舌音	retroflex	권설음	교설음]
	舌面前音	alveolo-palatal	설면전음	(전)경구개음
	舌面中音	palatal	설면중음	(후)경구개음
	[舌面後音	velar	설면후음	연구개음]
	舌根音	velar	설근음	연구개음
(22)	塞音(爆發音)	plosive	색음	파열음
	鼻音	nasal	비음	비음
	擦音	fricative	찰음	마찰음
	塞擦音	affricate	색찰음	파찰음
	近音	approximant	근음/통음	접근음
	邊音	lateral	변음	설측음

여기서 중국어 용어의 문제점부터 지적해야 한다. (21)은 조음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중국어 용어는 순음을 제외하고 혀의 위치를 중심으로 명명되어있다. 똑 같은 혀끝과 잇몸이 조음점이더라도 접촉점에 따라 발음은 미세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움직임이 심한 주동기관을 중심으로 명명한 용어는 부정확한 정보를 주기 쉽다. 그러므로 영어와 한국어에 서처럼 움직임이 없는 피동기관 즉 입천장을 중심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다.7)

(23) 주동발성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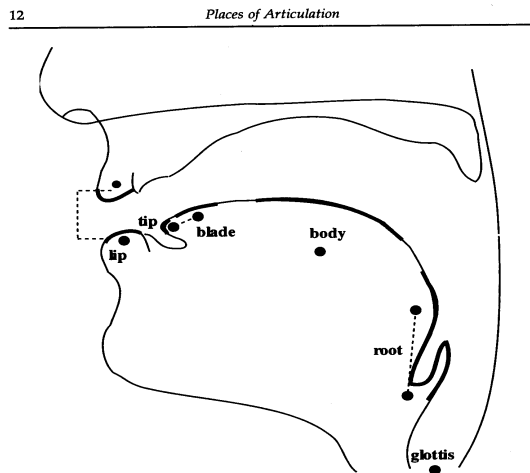


Figure 2.1 The five groups of moveable structures forming the active articulators in the vocal tract.

(24) 피동발성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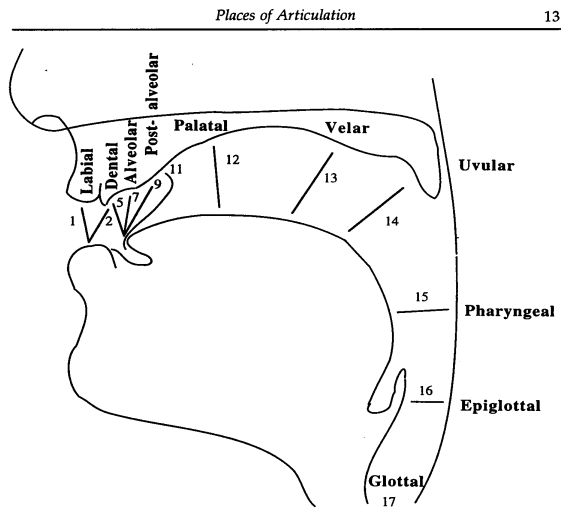


Figure 2.2 The nine regions of the vocal tract that can be considered as target areas for the moveable articulators. The numbered lines show some of the 17 named articulatory gestures, including those in the glottal region. Some additional gestures are shown in the more detailed diagrams of the anterior part of the vocal tract in Figure 2.3.

7) 필자는 90년대 이후 한동안 ‘설첨과열음’식의 불안정한 우리말을 사용해 왔다. 반쪽 우리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2006년 여름 난카이대학에서 개최한 전국음운론연수반에서 주 샤오농(朱 2006)과의 조우가 완전한 우리말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설침전음은 치음으로, 설침중음은 치은음으로, 설침후음은 교설음(翹舌音)으로 명명할 것을 嚴(2006)에서 제안한 바 있다. 중국어에서 권설음은 그 명칭이 암시하는 바와 달리, 혀를 말려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위로 치켜 올려서 내는 소리인 점을 감안하면 교설음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sup>8)</sup>

설면음을 전·중·후로 나누는 것은 더욱 불필요하다. 설면음을 피동기관의 관점에서 말하면 경구개음이 된다. 설면이 상향할 때 접촉하는 부위가 경구개이기 때문이다. 표준중국어에서는 한 세트의 설면음 즉 [t̪, t̪ʰ, ɕ]만 사용되므로 이를 경구개음으로 보면 된다. 문제는 뽀하이(渤海)만과 후양하이(黃海)연안의 자오랴오(膠遼)관화방언에서처럼 구개음화하지 않은 [c, cʰ, ɕ]음이 있을 때는 마이 윈(麥耘 2005)의 제안대로 전경구개음(前硬顎音 [t̪, t̪ʰ, ɕ])과 후경구개음(後硬顎音 [c, cʰ, 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근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설면후음은 실제 주동기관이 설면이 아니라 설근(혀뿌리)이므로 굳이 설면후음으로 명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는 어느 경우든지 연구개음으로 부르면 된다.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인 색음, 색찰음, 찰음, 변음은 한국어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설측음에 해당된다. 필자는 1996년 6월 《현대북경어생성음운론》을 출판하기 이전부터 이러한 한국어 용어를 사용해 왔다. 그런데 塞音이라는 말은 중국어에서부터 문제가 된다. 발성기관을 틀어막는다는 의미인 색음이라는 말은 사실 [p, t, k]같은 소리가 조음되는 과정의 전반을 묘사할 뿐이다. 일단 공기를 틀어막은 다음 갑자기 공기를 배출시키면서 내는 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열음이라는 말은 조음 과정의 후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둘 다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비음도 공기를 틀어막았다가 내는 소리이므로 색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색음보다는 爆發音이 훨씬 정밀한 용어라는 마이 윈(麥 2005)과 주 샤오농(朱 2006)의 주장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필자(嚴 2006)는 한 걸음 더 나아가 塞擦音도 爆發音으로 바꾸기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성문폐쇄음(glottal stop)에 해당하는 喉塞音까지 喉爆發音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이는 성문 폐쇄 후 기류의 폭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접근음을 과거 중국에서는 통음(通音)이라고도 하였는데, 통음이란 좁게는 반모음을 뜻하지만 넓게는 [+continuent] 즉 지속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속음은 모음은 물론 마찰음, 비음, 설측음도 포함하므로, 접근음(近音)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 다음은 필자가 2006년에 제안한 중국어 자음의 중국어 명칭과 한국어 명칭의 요약표이다.

(25) 중국어 자음 중국어 명칭

調音方法 \ 調音部位		唇音		齒音	齶音	翹舌音	硬齶音	軟齶音
		双唇音	唇齒音					
爆(發)音	不送氣 清音	b [p]			d [t]			g [k]

8) 표준중국어 교설음의 정확한 음가는 주 샤오농(朱 1982[2006])의 제안대로 교설접근음(retroflex approximant) [ɻ]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嚴翼相(2006:142-143)을 참조하라.

	送氣清音	p [p <sup>h</sup> ]			t [t <sup>h</sup> ]			k [k <sup>h</sup> ]
鼻音	濁音	m [m]			n [n]			(ng [ŋ])
爆擦音 (塞擦音)	不送氣 清音			z [ts]		zh [tʂ]	j [tɕ]	
	送氣清音			c [ts <sup>h</sup> ]		ch [tʂ <sup>h</sup> ]	q [tɕ <sup>h</sup> ]	
擦音	清音		f [f]	s [s]		sh [ʃ]	x [ç]	h [x]
近音	濁音					r [ɹ]		
邊音	濁音				l [l]			

(26) 중국어 자음 한국어 명칭

調音方法 \ 調音部位		唇音		齒音	齒齶音 / 齒莖音	翹舌音	硬口蓋音	軟口蓋音
		兩唇音	唇齒音					
破裂音	無氣 無聲音	b [p]			d [t]			g [k]
	有氣 無聲音	p [p <sup>h</sup> ]			t [t <sup>h</sup> ]			k [k <sup>h</sup> ]
鼻音	有聲音	m [m]			n [n]			(ng [ŋ])
破擦音	無氣 無聲音			z [ts]		zh [tʂ]	j [tɕ]	
	有氣 無聲音			c [ts <sup>h</sup> ]		ch [tʂ <sup>h</sup> ]	q [tɕ <sup>h</sup> ]	
摩擦音	無聲音		f [f]	s [s]		sh [ʃ]	x [ç]	h [x]
接近音	有聲音					r [ɹ]		
舌側音	有聲音				l [l]			

4.3 모음 관련 용어

- (27) 高元音                      high vowel                      고원음                      고모음  
 中元音                      mid vowel                      중원음                      중모음  
 低元音                      low vowel                      저원음                      저모음

前元音	front vowel	전원음/전모음	전설모음
央元音	central vowel	앙원음/앙모음	중설모음
後元音	back vowel	후원음/후모음	후설모음
中央元音	schwa	중앙원음	슈와/애매 · 중설중모음
展脣	unrounded	전순	비원순
圓脣	rounded	원순	원순
單元音	monophthong	단원음	단모음
複合元音	diphthong	복합원음	복모음
二合元音	diphthong	이합원음	이중모음
三合元音	triphthong	삼합원음	삼중모음

#### 4.4 성조 관련 용어

(28)	本調	citation tone	본조	본성조
	調類	tonal category	조류	성조종류
	調值	tonal value	조치	성조값
	連讀變調	tone sandhi	연독변조	성조변화
	輕聲	neutral tone	경성	경성 <sup>9)</sup>

#### 4.5 음절구조 관련 용어

(29)	聲母	initial	성모	성모/머리음
	零聲母	the zero initial	영성모	영성모
	韻母	final	운모	운모/몸통음
	介音	medial	개음	개음
	韻頭	medial	운두	운두/운머리
	主要元音	main vowel	주요원음	주요모음
	韻腹	nucleus	운복	운복/운배
	韻尾	coda	운미	운미/운꼬리
	帶鼻音韻母	nasal ending final	대비음운모	비음운미운모

음절 구조와 관련한 용어는 아직 검토를 더 해보아야 한다. 우선 필자는 현재 성모와 운

9) 성조에 어떤 무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면, 輕聲을 그냥 경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어처럼 중성(neutral tone)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나 강세가 있는 운음절의 경우 본래 성조를 지니고 강세가 없는 약음절의 경우 경성이 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경성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모의 개념을 정확히 전달할 마땅한 용어를 찾고 있는 중이다. 성모의 경우 전광진이 구두로 제안한 바 있는 머리자음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운모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마땅치 않다. 필자는 머리음과 몸통음은 어떤지 제안을 해 보고 싶다. 운두 · 운복 · 운미의 경우 각각 운머리 · 운배 · 운꼬리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뚜안무 썬(2005)은 전통적인 3층차 2분법에서 벗어나, 1층차 3분법으로 중국어의 음절구조를 인식하고 있다. 전통적인 분석에서는 개음이 운에 속하는 반면에, 뚜안무는 개음을 핵전활음(pre-nucleus glide)으로 보고 성모의 일부분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보다 간결한 음절구조를 제시할 수 있었다.

- (30) a. S=Initial+Final[Medial+Rhyme[Main Vowel+Ending]]  
 b. S=Onset+Nucleus+Coda 또는 S=C+V+X

뚜안무는 세계 모든 언어를 (30b)의 구조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때 onset, nucleus, coda에 해당하는 용어는 위 책의 한국어 번역처럼 두음, 핵음, 말음이 적절할 것이다. 뚜안무에서 개음은 즉 핵전활음으로 음절구조와 분석 방법상의 차이로 인한 용어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 4.6 음운변화 및 운율 관련 용어

(31)	兒化	retroflexion	아화	[운모]교설음화
	兒化韻	retroflexed syllable	아화운	교설음화운모
	齶化	palatalization	악화	구개음화
	停頓	pause	정돈	휴지
	重音	stress	중음	강세

음운변화와 관련된 용어 가운데 경성과 변조는 앞에서 이미 다루었다. 현대 중국어의 음운변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열후아(兒化)일 것이다. 중국어 음운론학자는 누구나 이에 관한 글이나 소견을 가지고 있을 만큼 널리 알려진 음운변화 현상이다. 문제는 이에 합당한 한국어 용어가 있는가이다. 영어에서는 대개 retroflex suffixation 또는 R-suffixation이라고 한다. ‘권설접미사화’ 정도로 번역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Eom(1998)과 엄익상(2002[2005])등을 통해 兒化의 기제(mechanism)는 권설자음이 앞 음절의 운미가 되는 접미사화가 아니라 권설성분이 앞 음절의 운모의 자질에 추가되는 현상으로 규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접미사화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펴고, retroflex suffixation보다 권설음화를 의미하는 retroflexion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대개 한자로 兒化라고 쓰고 ‘열후아’라고 읽는 경우가 많지만 그냥 한자

음으로 읽어 ‘아화’라고 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둘 다 부적절하다. 얼화 또는 얼후아는 우리 말이 아니고, 아화라는 한자어도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그동안 ‘운모권설음화’ 또는 간단히 ‘권설음화’라는 용어를 써왔다. 얼후아를 한 운을 兒化韻이라고 하는데, 이는 ‘권설음화운모’로 써왔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적어도 兒化의 기제를 잘 드러내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최근 권설음을 교설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펴면서 권설음화라는 용어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운모)권설음화’는 ‘(운모)교설음화’로 바꾸고, ‘권설음화운모’는 ‘교설음화운모’로 수정한다. 교설음화운모의 경우 ‘운모’를 ‘운’으로 바꾸어 兒化韻의 ‘운’과 일치시키는 효과도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교설음 자질이 결합하는 음절의 모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음의 포함 여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모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구개음화의 의미로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顎化는 번째로 齶化 간체로 齶化로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두 자가 발음도 같아 서로 통용되기는 하지만, 顎자는 일부 절지동물의 음식 섭취기관을 의미하고, 齶자가 입천장을 의미한다.<sup>10)</sup>

## 5. 역사음운론 용어

(32)	複聲母	consonant cluster	복성모	겹머리음
	重脣	bilabial	중순음	양순음
	輕脣	labiodental	경순음	순치음
	文讀	literary readings	문독	독서음
	白讀	colloquial readings	백독	구두음
	幫系	labials	방계	순음류성모
	端系	alveolars	단계	치음류성모
	知系	palatals	지계	(교설)경구개음류성모
	見系	velars	견계	연구개음류성모

문독과 백독을 글말과 입말로 번역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글말은 *written language*에 해당하는 우리말이고, 입말은 *spoken language*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문어와 구어의 우리말이 글말과 입말이다. 문독과 백독은 문어와 구어의 차이가 아니라, 글을 읽을 때의 한자음과 말할 때의 한자음의 차이를 의미한다.

역사음운론 분야에는 사실 현대 음운론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전문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에 합당한 현대적 용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淸이나 內·外轉 같이 명쾌히 정

10) 중어언어학계에서 흔히 잘못 쓰고 있는 단어로는 《漢語方音字匯》와 《漢語方言詞匯》의 字匯와 詞匯이다. 이를 번째자로 字彙와 詞彙로 쓰기 쉬운데, 여기서는 ‘모음집’이라는 의미로 滙로 쓰고 ‘회’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



의하기 어려운 용어들도 적지 않다. 알 수 없는 용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야로의 신진 연구자의 진입은 어려워질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전문 학문분야의 용어를 가장 쉬운 말로 선정하여 보급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6. 맺는말

지금까지 중국어 음성학 및 음운론 글쓰기에 있어서 형식의 표준화 과제 중 하나인 한국어 용어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여러 가지 제안 가운데 이미 학계에 상당히 보급된 용어도 있고 아직 그렇지 않은 용어도 있다. 필자가 제기한 원칙에 동의한다면, 이 논문에서 제안한 용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더 합당한 것을 찾아 나누어 쓸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학문의 보편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중국특유의 특수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할지 모른다. 특수성도 보편성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보편성을 백배 강조해도 중국적 특수성을 능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중국적 학문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끝으로, I.P.A.의 중국식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제음표(國際音標)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옳지 않다. 중문과 밖에서는 국제음성기호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품음을 나타내는 ‘표시나 [t̚ ě ĭ č ń ś ń]같이 I.P.A. 규정에도 없는 기호를 제 마음대로 쓰는 것도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용어만큼이나 젊은 중국어음운학도들을 괴롭히는 아킬레스건이다. 이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 參 考 文 獻 】

- 뚝안무 썬. 2005. 《표준중국어음운론》 제2판 (엄익상외역) 서울 : 한국문화사.  
 리 찰스 · 샌드라 톰슨. 1996. 《표준중국어문법》(박정구외역) 서울 : 한울 아카데미.  
 엄익상. 1985. 《文心雕龍 비평이론과 실례분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엄익상. 1996. <중국어 한글표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중국어언어연구》4:39-84.  
 엄익상. 2002a. <한국의 중국언어학과 한국적 중국언어학>《중국어문학논집》19:145-168.  
 엄익상. 2002b[2005]. 《중국어언어학 한국식으로 하기》 [수정본] 서울 : 한국문화사.  
 엄익상. 2003. <중국어 한글표기 무엇이 문제인가>《중국의 창》 2:80-92.  
 麥耘. 2005. <國際音標理解和使用的幾個問題>《方言》 2:168-174.  
 嚴翼相. 2006. <漢語輔音教學中正音與正名的問題>《中國文化研究》 9:137-149.  
 朱曉農. 1982[2006]<關於普通話日母的音值>《中國語文通訊》《音韻研究》(轉載) 北京: 商務印書館.  
 朱曉農. 2006. <關於中文語音術語的幾點看法> 第七屆中國語音學學術會議 10月.

Eom, Ik-sang. 1998. "Retroflexion and Syllabic Structure in Mandarin." *Proceedings of the Ninth North American Conference on Chinese Linguistics*. Hua Lin ed. Los Angeles: GSIL,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 A b s t r a c t 】

This article points out the problems of current Korean terms for Chinese phonetics and phonology. It opposes the use of Chinese terms directly and proposes to use more appropriate and accurate Korean terms that are acceptable in the field of general linguistics. In addition, it claims that some Chinese terms such as *seyin* for plosives and *juansheyin* for retroflexes should be changed to *baofayin* and *qiaosheyin* respectively to depict the natures of these sounds more accurately.

주제어 : 중국어, 음성학, 음운론, 용어, 한자어, 중국식 용어, 한국식 용어